세월호 침몰사고 잊지 않은 동국대

4.16청년희망순례 동참…
故최혜정 교사 추모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국대 동문인 故 최혜정 교사 추모비 앞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최 교사의 희생을 기리는 동국대 관계자들.

지난 5월 동국대 교양수업 강의 중 겸임교수인 A스님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동국대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당 사고를 잊지 않고자 4.16청년희망순례에 동참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9월 4일 사범대학림관 앞에 조성된 동문 故최혜정 교사 추모비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의 구조를 돕다 순직한 최 교사의 희생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윤재웅 사범대학장을 비롯해 지창규 불교대 교수, 교양강의 교수 덕림 스님, 김상애 불교대 교학팀장, 김종헌 총학생회장, 최호진 교무학생지원팀장, 박기련 법인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웅 사범대학장은 "최혜정 동문은 2013년 역사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단원고에 부임해 참 스승의 본보기가 됐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동국인들의 자부심"이라며 "최 동문의 추모비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4.16청년희망순례에 동참키로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 동문 추모비 앞에서 묵념과 헌화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 실상사 생명평화대학 청년들이 진행 중인 4.16청년희망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서산시 중왕리로 이동, 순례에 동참했다.

생명평화대학은 세월호의 이동경로였던 인천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2015년부터 매년 평화순례를 이어가며, 대중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순례대중은 여우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진충사에서 출발해 해안가를 돌며 1시간가량 순례길을 걸었다.

순례를 마친 뒤 김종헌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앞서 세월호 발언 논란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는 일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종헌 학생회장은 "세월호를 항상 잊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실천방법을 알게 됐다"며 "세월호 발언 논란에 학교 측이 해당교수 해촉 등 빠른 결단을 내려 다행이었다. 특히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는 향후 수업 중 수업과 무관한 비교육적 발언을 한 교원을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앞선 논란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호진 교무학생지원팀장은 "1학기 수업 중 발생한 발언 논란에 학교는 깊이 반성하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학생회와 연대해 신고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수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24일 인천에서 출발한 4.16청년희망순례는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생명평화대학생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활동가 등 15명이 참여하며, 올해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태안 몽산포해수욕장까지 약 284㎞를 순례한다.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9월 30일까지 공모

조계종이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작품을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TV · 라디오 · 신문 · 뉴미디어 · 특별상 · 불교언론인상이다. 불교언론인상은 불교언론인 중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한다. 또한 특별상은 방송, 신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광고, 미디어교육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시상한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각 부문별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불교언론인상 300만원, 특별상 200만원이다. 출품 대상은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며, 응모는 응모사유서를 통한 직접 응모와 언론 및 불교관련 분야 전문인사의 추천을 받는 추천응모로 나뉜다. 응모사유서와 추천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기본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우편 외 이메일(media@buddhism.or.kr)로 추가 전송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11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02)2011-1770 윤호섭 기자

추석맞이 불교계 자비나눔 활발

조계사 · 해운정사 등 소외계층에 생필품 전달

자비나눔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한가위다. 추석을 앞두고 불교계 자비나눔행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30일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추석맞이 햅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종로구청에 햅쌀을 전달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햅쌀 5kg과 수건, 비누 등 생필품을 종로구 내 쪽방주민 150명과 고시촌 주민 100명, 종로구 산하 17개동 500가구에 전달된다. 종로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된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조계종 종정)와 조계종 진제선세계화회(이사장 능혜)는 8월 30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7회 세자녀 장학금 전달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 자녀를 둔 가정 100세대에 각 5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9월 3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광장에서 관내 저소득계층 450세대에 총 504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제34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열고 속초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450세대에 농협상품권과 쌀 1포대, 한과 1박스 등 총 5040만원 상당의 추석맞이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또 계룡 무상사(주지 대봉)도 충남시청에 김 100박스 등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찰들의 활동과 함께 재가불자들의 자비보시행도 활발히 진행됐다.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은 추석을 맞아 9월 4일 부산진구청(구청장 서은숙)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10kg 1000포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자살, 명상으로 방지한다

불교상담개발원, 문체부 프로젝트로 명상 운영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이 2019년 생명존중 · 자살예방 '몸 · 마음 · 쉼'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차 명상을 활용한 집단상담' △부정적 반추의 전환을 통한 자살예방 명상 △오늘, 인생 1일차 △꿈알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들이다. '차 명상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게이트 키퍼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오감 차명상, 관불세심, 별처럼 듣기 등을 진행한다.

'부정적 반추의 전환을 통한 자살예방 명상 프로그램'은 우울증 위험군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집중호흡, 긍정적 감각 알아차리기 방법으로 진행한다. '오늘, 인생 1일차'는 자살유가족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호흡명상, 인생그래프 그리기, 생애사건 기억 애도하기 등이 진행된다.

'꿈알'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마다 숲의 생명체와 교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한다. 02)737-8802 노덕현 기자

지상중계 대한민국 명상포럼

"AI시대, 명상이 인류 구원"

킴킴(Kim Kim)의 '빅데이터와 不二'



현대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빅데이터는 불교의 불이사상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타겟(Target)이라는 백화점에서 신생아 물품 할인쿠폰을 임산부인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아버지가 "우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이런 쿠폰을 보내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항의를 받은 고객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했죠. 그런데 얼마 뒤 백화점에 항의한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딸과 얘기해보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화점이 부모보다 먼저 한 여성의 임신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백화점은 임산부들의 과거 쇼핑 목록을 AI로 분석했습니다. 출산 3 · 6 · 9개월 전 임산부 고객의 쇼핑패턴을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여성의 쇼핑패턴도 여기에 포함돼 쿠폰을 보낸 것입니다. 그해 이 백화점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큰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는 이처럼 수집-분석-관찰을 반복으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알파고처럼 프로그램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말미암아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A로 말미암아 B가 일어나고, B로 말미암아 C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인간의 몸은 지구가 생겨난 이후 35억년 동안 빅데이터를 구축해 유전돼왔습니다. 그런 빅데이터 역할 때문에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그 바나나는 인간의 몸이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 땀샘을 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구축된 유전자 정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빅데이터가 좌지우지하는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서에 집중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식욕이 일어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react)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 대처(respond)가 가능하도록 지금 여기 깨어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영역'에서 '앎을 보는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명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경험하는 세상'에서 '경험을 보는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불이(不二)의 체험은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가령, 꽃 한 송이가 있다고 하죠. 우선 우리는 꽃을 향해 눈빛을 돌려 꽃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때 그 '아는 놈'에게 눈빛을 돌리는 겁니다. 밖으로 향한 내 눈빛을 안으로 거둬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대상이 주체가 되고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뢰딩거는 "우주 전체에 마음(앎)은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톤은 "마음이 DNA영역 위에 군림한다"고 말했죠. 명상은 떠나지 않은 고향, 즉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AI시대의 확립이 굳어진다면 우리는 남는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절약된 시간을 영성의 길로 갈지, 낭비해 멸망의 길로 갈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해야만 합니다.

정리=윤호섭 기자

▲킴킴(Kim Kim)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컴퓨터 · 수학 · 언어학 · 전산언어학 등을 전공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후 현재 인공지능 클라우드 파트에서 수석그룹장을 맡고 있다.

운문인이라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운문사에서 선후배 스님들을 모시고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길 청합니다.

제48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일시_ 불기2563(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2시(음8.25)

●장소_ 운문사 선열당

●안건_ • 모교 발전에 대한 건
• 회칙 변경 건(회장단 임기)
• 기타 안건

●전화_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031-874-7007(동문회 회장)

※ 장학금 신청자는 9월 9일까지 운문사 종무소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진 합장